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입니다.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16회

16. 구원의 하나님

2010년 8월 7일(안식일 아침)

[사45:8]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序: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없지요.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도구로 제 칠일 안식일을 주시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표로 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당신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한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어떻게 구주가 되셨습니까? 구주는 왜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친히 구주의 일을 하시면 안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성경이 계시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1.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경위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은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진짜로 무엇입니까? 애청자들께서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구원의 진짜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셨는지요?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과 믿음은 사실일 수도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해보면 구원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멸망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말과 같지요. 구원이 영생이니까 멸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결국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형수라는 말입니다. 다만 사형집행일이 언제일는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이런 진실은 이미 5월 15일 8회 설교할 때 말씀 드린 사실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그 때 자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사람을 한꺼번에 다 만드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생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이고 창조주께서는 그 한 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갈비뼈를 취하여 내실 때, 아담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어 내어 여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여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입니다.(행17:26) 인류의 혈통은 오직 아담의 혈통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확실하게 경고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는 영생의 생명, 곧 생명 자체가 없어지고 한 번 죽는 일이 생겼고, 그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가지지 못한 영생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외 없이 다 한 번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안에 없는 참 생명을 그의 후손에게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고전15:22) 이렇게 되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구주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주가 할 일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사형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그렇게 한 사실을 믿을 때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대신 사형을 당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2. 육신이 되신 말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려면 사람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주는 반드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주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되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3: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예언해 주신 것을 역시 5월 15일 8회 설교 시간에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곧 이미 사망이 된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명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여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1:14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은 바로 요1:1~3에 기록된 말씀 그분이지요.

[요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계시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 드렸지요. 그 창조주 하나님 도편수가 되셔서 모든 것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래 생명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의 원래 생명 그것으로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과 그의 후손의 그 죽음으로 대신 죽어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한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서 구주의 임무를 수행하셨다는 사실은 구원은 창조와 같은 것임을 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계시한 이유가 바로 구원이 창조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면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한 위이신 분이 아들의 신분을 취하시고 순결한 처녀의 태를 빌어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아들의 위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에 사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도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아담이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하신 것입니다.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창조와 구원

성경은 구원이 창조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했습니다.

[사45:8]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구원과 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면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사람들을 향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 구조가 달라집니다. 또한 도덕성도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왜냐하

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엡4:22~24]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태초에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것처럼 재창조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하십니다. 구원이 창조와 같은 일임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창조되었으니 사상과 지식이 하나님의 사상과 그 지식을 구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골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은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창조자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는 지식에 이르도록 인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같은 상태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은 또한 구주는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과 의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라고 가르쳐주셨고, 구약성경에도 구주와 창조주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43:11~15]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4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시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행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구주과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창조주 외에 구주가 될 수 있었다면 굳이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늘에는 거룩한 천사들, 능력 있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구주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가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면 예수를 통하지 않은 구원의 길을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적 선행에 기초하여,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 믿고 수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구원이 창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하실 때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 드린 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여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죽음을 처리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받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간의 죽음을 처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에는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고, 얻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5:24,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니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도 바로 창조와 부활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생명과 구원의 주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을 바울이 증언합니다.

[롬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잘 가르쳐줍니다.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와 재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습니다. 곧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주가 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영존하시는 자신의 생명으로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하여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시고 사람으로서 사람 가운데 사시고 사람의 죽을 것을 대신 사람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재창조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한 번 해보고 확인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4. 예수의 교훈의 독특성

예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며, 정말 구주가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그 대답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에 어떤 마을을 전도 방문을 하며 집집마다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큰 집 앞 넓은 바깥마당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영을 엮는 사람, 새끼를 꼬는 사람, 기타 짚으로 무엇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풍골이 좋은 노인이 그 일하는 것을 지휘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어름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지 뭘하고 있는지 아는가?”

“제가 모르지요.”

“이봐, 자네, 이 동네로 올라오는 길에 큰 도무가 동구에 있는 것 봤는가?”

“예, 봤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에 동체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네. 그때 자네가 그 제사에 참석하게 그러면 나도 교회에 나가지.”

“할아버지, 왜 나무에다가 제사를 합니까? 그 나무가 동네에 무슨 복을 내려 줍니까?”

“이 사람아, 그러면 교회 나가면 무슨 복을 주냐?”

“할아버지,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나무가 무슨 말씀을 줍니까?”

할아버지는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성경은 그냥 성현의 말씀이네. 좋은 말씀들이지.”

이렇게 말하고 그는 나를 지긋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아, 나는 오래 오래 살고 싶다네. 금년에 70인데도 말이야.”

“할아버지 신수를 보니 장수하시겠는데요.”

“이 사람아,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말이야.”

나는 얼른 그 말을 받아서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불사약을 드릴 수 있는데,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어디 있어?”

“예, 할아버지, 진시황도 실패했고, 한 무제도 실패했지만, 제가 드리는 불사약은 틀림없습니다. 잡수시면 됩니다.”

“예끼, 이사람 그런 것은 없어?”

나는 그때 들고 있던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11:25,26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으니 할아버지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아이고, 이사람, 그런 것은 없어.”

“할아버지, 성경은 성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성경은 성현의 말씀이지.”

“성현도 거짓말을 합니까?”

“성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나. 거짓말을 하면 성현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성현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그런 것은 없어. 그걸 누가 믿어.”

“어르신, 성경은 성현의 말씀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성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당연하지. 거짓말을 하면 성현이 아니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성현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깐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합니다.”

“아이고, 그걸 누가 믿어?”

“예수님은 성현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성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으셔야죠. 그러면 영생합니다.”

이쯤 와서 그 할아버지는 자기 말의 모순을 문득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너털웃음을 웃으며 내가 전해 드린 전도지를 조끼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것 우리 손자 놉 주지.” 그러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라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생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 노인장처럼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성현이고 성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분의 태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훌륭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간디는 이 교훈을 따라 무저항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가장 그리스도인처럼 산 사람이 간디라고 평했습니다. 과연 산상보훈은 정말 보훈입니다. 보훈 곧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런 교훈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도덕적 교훈들이고, 계명에 입각한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 중에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내가 ...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성인입니까? 그분이 남을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 가르침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성인될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의 본질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진짜 이든지 아니면 가짜입니다. 두 가지 사실 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며 모두 말쭙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본질적인 말씀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산상보훈 같은 교훈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훈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세상에 오지 않았고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죽음을 대신 당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주는 창조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확실한 구주 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창조와 재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면 정말 구원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통한 생활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진리를 듣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주는 창조주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주가 되심을 확실히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구주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영광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주옵소서. 오늘도 이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형통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설교자에게는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